역사와 논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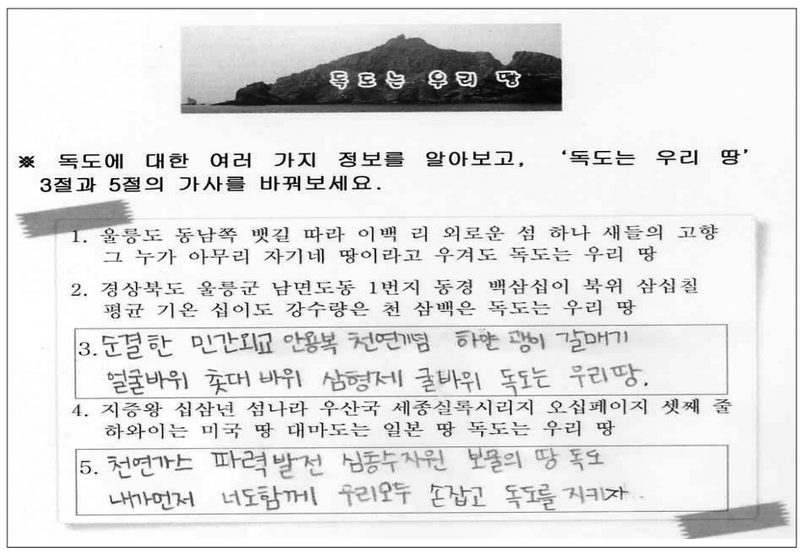
보령 청소초등학교 **정근란** 교사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한 가치를 요구하는 오늘날은 창의적인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을 갖춘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창의성과 사고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폭넓은 지식을 활용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논술'이 교육계의 화두가 된지 오래다. 입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초등 논술은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창의적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사고의 과정'에 초점을 두어야한다. 이번에 제시된 논제는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여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분명히 알리고,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독도가 우리의 땅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역사적 근거를 분명히 제시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나아가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 실천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본 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중한 국토인 독도를 바르게 아는 것에서 출발하여 일본의 주장에 어떻게 맞서 지켜야 하는지 방법적인 면을 찾아야 한다. 본 원고는 본교의 '논술Fun治' 동아리에서 논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각 꺼내기 – 생각 펼치기 – 생각 엮기 – 처음 쓰기 – 첨삭 활동 및 고쳐 쓰기'의 사고 과정을 거쳐 전개한 논술문 쓰기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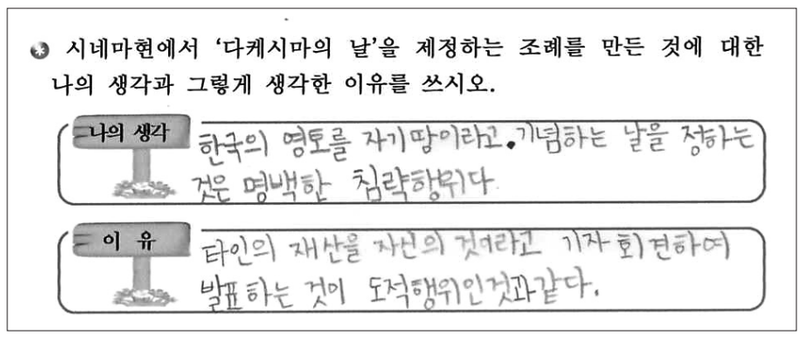
● **논제 :** 역사적 근거를 제시하여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분명히 알리고, 독도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쓰시오.

생각꺼내기

생각 꺼내기 활동은 글을 쓰기 전 아이디어를 생산하는 단계이다.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독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 내고 '독도는 우리 땅' 가사를 바꿔 부르며 배경 시식을 정리하였다.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알기 위해 일본 시네마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 조례안을 살펴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토론을 전개하였다. 독도 관련 역사적 사실과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따른 우리 나라와 일본 정부의 반응에 대하여 말 주머니 채우기, 생각그물 만들기를 하면서 아이디어들 간의 연관성을 새롭게 발견하고 조직하였다.



<독도에 대한 지식으로 노래 가사 바꾸기>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한 나의 생각 >

생각펼치기

생각 펼치기 활동은 논제에 맞는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보는 단계로 독도가 우리 나라 땅임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찾아내야한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 인물 안용복, 홍순칠, 최종덕의 업적과 그들의 주장을 알아보았다. 또한, 역사적·지정학적·국제법상의 근거와, 카이로 선언 내용을 통해 독도가 우리 나라 땅임을 밝힐 수 있는 근거를 모아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근거자료 찾기

수집한 자료 분석

생각엮기

생각 엮기는 생각 꺼내기와 펼치기를 통해서 생성되고 수집된 아이디어를 고르게 조직하는 단계이다. 일본은 독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일을 꾸미고 있는지, 독도가 우리 나라 땅임을 알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지 내세우고, 독도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찾아 글의 뼈대를 세웠다.

처음쓰기

처음 쓰기는 생각 꺼내기와 펼치기, 생각 엮기 과정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문자 언어로 표현하는 단계이다. 여기에서는 완결된 쓰기를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글의 내용이 글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글의 성격과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는 제목으로 문단의 짜임에 유의하며 글을 써야한다.

학생 글

<보령 청소초등학교 6학년 정설화>

우리 땅 독도

독도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보여주고 풍부한 천연자원을 내어주는 소중한 섬이다. 하지만, 일본은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 우기며 우리의 영토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 독도가 대한민국 땅인 이유와 독도를 지킬 방법을 살펴보자.

지정학적으로 독도는 우리 나라에 더 가깝게 위치해 있다. 민간 외교관 안용복은 일본에 납치되어 갔어도 독도는 조선의 것이라고 끝까지 주장하였다.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에서 불과 하루거리 이지만 일본 땅에서는 닷새거리이므로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역사 속에서 살펴보아도 독도는 대한 민국 땅임이 명백하다. 신라 지증왕 13년에 울릉도와 독도가 신라에 포함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면 '독도는 울릉도와 더불어 울지현의 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고 기록 되어 있다. 이처럼 독도는 우리 나라 10여개의 역사적 기록에 실려 있다.

카이로 선언과 국제법에 따라 일본은 억압과 강요로 빼앗았던 독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제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국제 사회가 맺은 '카이로 선언'을 보면 폭력과 강요에 의해 취득한 모든 영토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때문에 일본은 폭력과 강요로 빼앗아 갔던 독도를 당연히 포기해야한다.

카이로 선언과 역사적, 지정학적으로 대한민국의 땅인 독도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첫째, 독도 경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민간 외교관으로 독도를 지킨 안용복, 독도 의용 수비대 홍순칠 등의 뜻을 이어 받아 독도를 끝까지 지켜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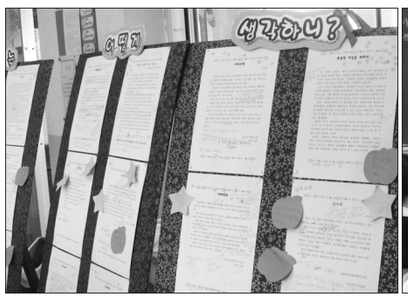
둘째, 독도를 지속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독도와 주변 바다의 생태계와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해양 수산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독도를 사랑하는 만큼 제대로 알고 이를 알려야 한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며 소리만 높인다고 일본이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독도에 대해 바르게 알고 이를 국내·외에 알려야 한다.

카이로 선언과 역사적·지적학적으로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이라는 쪽이 유리하다. 국제법을 무시한 채,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이 그릇된 주장을 거둬들이고 독도를 포기한다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이는 더욱 발전할 것이다.

첨삭활동

과정 중심 글쓰기와 첨삭 지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논술력을 신장시키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에 본교의 <논술Fun治> 동아리에서는 개별 학습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논술 저해 요소를 '진단'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처방'을 위해 다양한 첨삭 활동 및 첨삭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쓴 글을 게시하여 돌려 읽고 자신의 생각을 적어 주는 학생들 간의 상호 첨삭은 또래의 다양한 논술문을 접할 수 있어 비판적 읽기 능력 향상과 독자를 배려한 글쓰기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학생이 쓴 글 중 한편을 골라 학생들과 함께 공동으로 첨삭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학생 상호 첨삭

첨삭 수업 전개

아래의 내용은 더 좋은 논술을 쓰기 위해 어떤 점을 고쳐야 할지 동아리 학생들과 진행한 첨삭 수업을 정리한 것이다.

1. 논술의 제목

글의 제목은 독자의 시선을 맨 처음 붙잡아 글 속으로 안내하는 간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간판을 보고 그냥 지나칠 것인지, 가게에 들어설 것인지 판단을 내립니다. 주어진 주제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분명히 알리고,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대개는 설화 학생처럼 '우리 땅 독도'와 같이 상투적으로 정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에듀스충남'에서 같은 논제로 논술을 쓴 85% 이상의 학생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논술의 제목은 글쓴이가 주장하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주장을 다 드러내면 읽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설화 학생의 논술 제목은 무난하지만 너무 상투적인 느낌이 듭니다. 결론에 있는 '독도는 다케시마가 아니다'를 인용하여 제목으로 쓰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1. 서론 쓰기

서론은 글의 첫머리로서 본론에서 다룰 주제(논제)를 제시합니다. 첫 인상이 좋아야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가고 친해지고 싶어지듯 글도 서론에서 읽는 사람의 관심을 끌어야 끝까지 읽고 싶어집니다. 설화 학생은 글의 첫 부분은 자연스럽게 전개했지만, 서론의 중심 역할이라 할 수 있는 논제 제시가 약합니다. 논술문은 글을 읽는 사람이 논제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는 가정에서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론은 '도입'부분과 '논제 제시' 부분으로 나뉘는데, 설화 학생의 글은 도입부와 논제 제시부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2. 본론 쓰기

본론은 논술의 핵심으로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펼치는 부분입니다. 논제에 대해 창의적인 주장을 펴고,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는 곳으로, 서론에서 제시한 글의 방향에 맞추어 독자적인 자신의 견해를 논리적으로 서술해야합니다. 설화 학생은 글 전체에서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단락의 구성도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논술의 형식을 잘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지정학적으로 독도는 우리 나라에 더 가깝게 위치해 있다. 민간 외교관 안용복은 일본에 납치되어 갔어도 독도는 조선의 것이라고 끝까지 주장하였다.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에서 불과 하루거리 이지만 일본 땅에서는 닷새거리이므로 우리 땅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중심 문장은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개념을 담은 문장이고, 보조 문장은 그 개념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는 문장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독도는 우리 나라에 더 가깝게 위치해 있다'와 안용복의 예를 논리적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 **예시**
>
> 지정학적으로 독도는 우리 나라에 더 가깝게 위치해 있다.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에서 불과 하루 거리인데, 일본에서는 닷새 거리이므로 분명히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우리 영토인 울등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48해리인데, 일본 영토인 은기도에서는 이 거리의 약 두 배인 82해리이다. 따라서 독도는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우리 나라의 영토이다.

중심 문장에서 두 가지의 주장하였다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나 예시 자료도 두 가지에 대해 모두 밝혀야합니다. 설화 학생은 '카이로 선언과 국제법상에 따라 일본은 억압과 강요로 빼앗았던 독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라는 중심 문장에 대한 근거로 카이로 선언에 대한 것만 밝혔습니다.

> **예시**
>
> 카이로 선언과 국제법상의 근거에 따라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카이로 선언'에 의하면 폭력과 강요로 빼앗은 영토는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는 구절이 있다. 국제법상으로 무인도를 자국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역으로 실질적을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 독도에는 우리의 국민이 살고 있고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땅인 것이다.

본 논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과제, 즉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와 독도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부분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3. 결론 쓰기

서론과 본론에서 서술했던 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부분이 결론입니다. 서론이 논술 주제로 관심을 유도하는 곳이라면 본론은 자신의 견해나 주장을 본격적으로 내세우는 곳이고, 결론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면서 논의를 끝맺는 곳입니다. 설화 학생은 본론의 내용 중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 부분에 대해서만 정리하고,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결론에서는 '~ 할 것이다.'라는 문장 보다는 '~ 이다'라는 확신에 찬 문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쳐쓴 글

<청소초등학교 6학년 정설화>

독도는 다케시마가 아니다

독도는 아름다운 자연, 풍부한 천연자원과 함께 우리의 영해를 결정짓는 중요한 곳이다. 하지만, 일본은 터무니없이 독도를 자신의 땅이라 우길 뿐 아니라 독도에 '다케시마'라는 이름까지 붙여 독도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 이에 지정학적, 역사적, 국제법상으로 독도가 대한민국 땅인 이유와 독도를 지킬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정학적으로 독도는 우리 나라에 더 가깝게 위치해 있다.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에서 하루 거리인데, 일본에서는 닷새 거리이기 때문에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우리 영토인 울등도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는 48해리인데, 일본 영토인 은기도에서는 약 두 배인 82해리이다. 따라서 독도는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우리 나라의 영토이다.

역사적 기록으로 보아 독도는 대한 민국 땅임이 명백하다. 신라 지증왕 13년에 울릉도와 독도가 신라에 포함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보면 '독도는 울릉도와 더불어 울지현의 동쪽 바다 가운데에 있다.' 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 외에도 우리 나라 10여개의 역사적 기록에서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하고 있다.

카이로 선언과 국제법상의 근거에 따라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 '카이로 선언'에 의하면 폭력과 강요로 빼앗은 영토는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는 구절이 있다. 국제법상으로 무인도를 자국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 독도에는 우리의 국민이 살고 있고 대한민국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의 땅인 것이다.

영토를 넘보는 일본으로부터 소중한 독도를 지키는 일과 아름다운 국토로 가꾸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자.

독도 경비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민간 외교관으로 독도를 지킨 안용복, 독도 의용 수비대 홍순칠 등의 뜻을 이어 받아, 현대에 맞는 방법으로 독도를 지켜내야 한다. 독도와 주변 바다의 생태계와 자연 환경을 보전하고 해양 수산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발전시켜야 한다. 독도를 사랑하는 만큼 제대로 알고 이를 알려야 한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며 소리만 높인다고 일본이 영유권을 포기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독도에 대해 바르게 알고 이를 국내·외에 알려야 한다.

지정학적·역사적·국제법상으로 독도는 대한민국의 땅임이 분명하다. 독도와 다케시마는 다른 땅이다. 독도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살고 있지만, 다케시마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 일본의 상상 속에 있는 전설의 땅에 불과하다. 우리 모두 독도를 제대로 알고 지속적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시켜 나갈 때, 다케시마가 아닌 독도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